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임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삼성, '단체급식 일감 몰아줘' 과징금 2350억... 최저성 고발

(전 미래전략실장)

삼성그룹이 사내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적발돼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개입한 가운데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해 준 삼성전자(과징금 1012억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액수는 부당지원행위에 부과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

사(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 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 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 4월), 삼성SDI(2013년 6월), 삼성전기(2013년 7월)와 해당 계약 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마저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웰스토리는 약 9년간의 이런 몰아주기를 통해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래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러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하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웰스토리는 이런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의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 또 합병 전 삼성회계법인 이 평가한 제일모직 즉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000억원)가 피합병회사인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5년~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받았다.

공정위,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웰스토리에 물량 100% 몰아줘 '높은 이익' 보장 계약구조 설정

웰스토리, 9년간 직접이익 25% 단체급식 영업이익률 15.5% 달성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율 25% 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 이익률(매출액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직접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급식업체의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 기준으로 사용된다.)은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같은해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저성 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이듬해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세종=한용수 기자

외투 184개 품목 타겟팅·집중유치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주재 K-뉴딜·첨단소부장·백신 등 유망 유망성 높은 '그룹A' 집중

내년부터 그룹B·그룹C도 유망 유망성·애로해소 등 체계 개선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투 유치 필요성이 큰 핵심 유망품목을 타겟팅해 집중 유망에 나서는 등 외투의 질 관리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외투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투전략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와 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으로도 우리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외투전략에 따르면, 우선 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망품목을 정해 유망 필요성을 기준으로 1·2·3순위로 분류한다. 이어 해당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망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해 유망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유망 필요성과 유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그룹A'에 해당하는 100대 기업 유망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망 노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투 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 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기술 기준 외국인투자유치는 6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기록중이며 수출과 고용 등 양적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10.8%, 고용은 5.6%, 수출은 18.6%나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귀농·귀촌인구 49만명... 전년대비 7.4% ↑

농식품부, 2020년 통계결과 가구수 35.8만 가구 '역대 최대' 2030 청년층 농촌유입 상승세

지난해 농촌 유입 인구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귀농·귀촌 가구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이하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눈에 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가구수는 35만 7694가구로 관련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총이동인구는 773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63만 1000명 증가했다. KREI의 농업농촌 국민식조사에선 도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연령
2019년	11,422 (100.0)	1,209 (10.6)	1,747 (15.3)	4,251 (37.2)	3,460 (30.3)	755 (6.6)	55.0
2020년	12,489 (100.0)	1,362 (10.9)	1,784 (14.3)	4,365 (35.0)	4,060 (32.5)	918 (7.4)	55.3
증감 (비중 증감)	1,067 (-)	153 (0.3)	37 (-1.0)	114 (-2.2)	600 (2.2)	163 (0.8)	0.3

/자료=농식품부

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1.4%로 전년(34.6%) 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는 7만 1614가구로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여전히 50·60대 가구가 전체의 67.5%를 차지해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또 1인 귀농·귀촌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선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이나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54.5%)·경북(16.9%)이 전체의 71.4%를, 화순은 광주광역시(78.5%), 임실은 전북(59.0%)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죽전휴게소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환경부, 연내 15곳에 30기 설치 930곳에 충전시설 추가설치 계획

죽전휴게소에 20분이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350kW급 초고속 충전기 2기가 25일부터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5곳에 초고속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930곳에 충전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350kW 초고속 충전기 2기는 공공부에서 처음 설치돼 운영된다.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는 400km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를 약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충전에 1시간 가량 걸리는 100kW급 급속 충전기보다 더 빠르다.

환경부는 또 올해 3월 개발한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급속 충전기가 필요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졸음쉼터 등 1~2등급 지점에 90%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은 통행량, 전기차 등록 대수, 월평균 충전



죽전휴게소에 설치된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환경부

횟수, 인근 충전소 거리, 급속 충전기 보급수 등을 분석해 충전시설 설치 지점을 5등급(우수~열악)으로 분류한다.

/세종=원승일 기자